

# 민주당 박시환·김지형, 국민의당 문성우·명동성 거론

## 맞을린 '슈퍼 특검' 누가 맡나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검법은 공포 발효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두 당은 5일 이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을 맡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변에서는 특검 후보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올르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특검 후보군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놓고는 양당 사이에서 아직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며 각 당이 한 명씩 추천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협의해 2명을 추천할 지도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정경유착을 성역 없이 수사,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

## 양당 선정 원칙·기준 조율

### 호남출신 후보들 급부상

### 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등 염두

나 "특검의 덕목은 강직함과 열정, 그리고 국민적 신뢰도"라고 말했다.

양당은 내부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당은 4명의 특검보에 대한 후보군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적합한 후보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특검보에 대해 각 당 몫, 시민단체 몫 등으로 나눠 먹기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견검사도 주목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윤 검사는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는 특검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특검에 참여하려면 파견검사로 나와야 한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서울중앙지법 합의부)은 3개월 이내, 2심과 대법원 상고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이 12월 초 출범, 최종 기간 활동하면 내년 4월 초쯤 활동을 종료하며, 이후 내년 11월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 특검 수사와 판결 내용에 따라 내년 연말까지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일군사정보협정 기어코 의결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 대한민국 상징 로고가 놓여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 盧, 검찰수사 없었고 차은 이미 피의자 반대 65% vs 찬성 74%...민심 정반대

### 박대통령 탄핵, 노무현과 다른점은?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탄핵 대상의 형사소송법상의 신분에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달리 피의자가 아니었다.

지난 2004년 3월 16대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내세운 근거는 수사를 통해 확정된 피의사실이 아니었다. 선거중립의무 위반, 측근 비리에 대한 책임,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선거중립의무 위반 소지를 인정하되, "직을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가 아니다"면서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 결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의 공범으로 탄핵 대상에 오르게 됐다.

즉, 이번 탄핵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만 있고 검찰 조사로 입증된 범죄 사실이 없었던 노 전 대통령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탄핵 위기에 몰린 대통령에 대한 민심에도 차이가 있다. 12년 전에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지금은 반대다. 2004년 탄

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3일 전 KBS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응답이 65.2%로 찬성(30.9%)의 두 배 이상이 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이나 자진사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탄핵은 시점이 박 대통령의 임기 말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임기 1~2년 차여서 탄핵 시 국정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 의석 분포상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소수라는 점은 유사하다.

2004년 탄핵안 발의는 제1·제2 야당인 한나라당(144석)과 민주당(62석)이 주도했다. 이어 자민련과 무소속이 합세해 재적 271명 중 195명 투표에 찬성 193표(반대 2표)로 강행처리했다. 사실상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해 저지할 힘이 없었다. 이번에도 민주당(121석)·국민의당(38석)·정의당(6석)이 3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감안하면 탄핵 찬성표는 171표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여당 내 상당수 비주류 인사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탄핵 의결정족수(찬성 200표)를 넘길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헌재, 대통령 혐의 탄핵 사유 되나 심사중

### 국회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 소원

### 사전 심사 단계...각하·본격 심사 여부 검토

검찰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본격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혐의 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탄핵소추안 자체가 아니고 탄핵안과 형식적 절차나 심사기준은 다르지만, 탄핵 사유와 범리 등에 관한 제반 검토는 이뤄질 수 있어 현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달 2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따뜻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중이다.

해당 청구인이 누구인지는 현재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안팎에선 청구인 측을 시민단체나 법조인 등으로 추정한다.

청구인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저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여 청구인 측은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이 스스로 문건 유출을 시인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하므로 이는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해 탄핵소추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아직 이 사건을 사전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심사란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재가 본격적인 심사를 하기 전에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단계다.

필요성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다.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헌재가 본안 심사를 하기로 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도 전에 '탄핵 정국'이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공무상 비밀누설 죄는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적시한 대통령의 주요 혐의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사안이 탄핵심판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도 크다. /연합뉴스

트렉스타 세계랭킹 12위(아시아 1위) 등극 (COMPASS지 공식발표 기준)

**Treksta**

# 손없이 신고 묶는다!

핸즈프리 - 손없이 자유롭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신 개념 워킹화

**HANDS FREE**

로터를 뒤로 당기면 신발끈이 자동으로 묶입니다. 하이퍼그립 테크놀러지로 어떤 환경에서 미끄럼없이! NestFit 테크놀러지를 통한 맨발걸이 편한 착화감!

트렉스타 매장 개설문의  
부산본사 051 309 3672 (박근우 과장)  
서울지사 070 8169 3122 (정광천 차장)

www.treksta.co.kr